

171회 남북물류포럼 조찬

일시 : 2021년 2월 24일 (수) 15:00-17:00

장소 : 온라인 ZOOM 화상회의

주제 : “개성공단에서 본 북한, 북한사람들 ; 그들과 희망을 나눌 수 있는가?”

발제 : 유창근 대표

-발제 내용 요약-

유창근

개성의 이야기를 아픔과 화해협력을 통한 희망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나눠보고 싶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통해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주제는 개성공단에서 본 북한과 북한 사람들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5년 전, 개성공단이 중단되고 난 후 남북물류포럼에서 개성공단이 중단된 배경에 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당시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입은 있으나 할 이야기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서는 개성공단에서 보고 느꼈던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정권이 1년 남은 상황에서 개성공단은 언제 열릴지 모르는 안타까움과 예측 불가능, 그리고 세계 전체가 코로나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예측 불가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는 한결같이 개성공단이 열리기를 기대했고, 지금도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중단은 헌법 위반

개성공단의 굴곡진 이야기를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10일에 중단됐습니다. 2016년 2월 9일 당시 대변인이던 저에게 여러 방송사로부터 긴급한 이야기들이 날아들었습니다. 비상상황인데, 이대로 가도 되냐는 염려와 우려가 담겨있었습니다. 그 전날 제가 장관께 “목숨을 걸어주십시오. 개성공단은 우리 민족의 미래이고, 역사입니다. 장수는 때에 따라 목을 걸어야 합니다.”하고 간곡하게 이야기했던 생각이 납니다. 개성공단이 중단된 후 국회에 나와 장관께서는 불가피한 입장이라고, 북한의 임금이 전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어느 국회의원의 송곳같은 질문에 결국 2월 15일 와전됐다,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장이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과거 우리 정권에서 2010년 5.24조치로 모든 남북교류가 중단될 때, 정권 내부에서도 개성공단만은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3년 4월에 북측에서 잠정중단조치를 취했을 때, 박근혜 정부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놓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무지한 결정은 있을 수 없다며 빨리 개성공단을 열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민간과의 약속인 투자보장을 해주어야 한다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어겼다며 박근혜 정부는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본 UN 사무총장이 나서서 개성공단의 재개를 언급했을 정도로 개성공단의 존재감은 컸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개성공단을 박근혜 정부는 법률적 절차도 없이 구두지시로 전면중단이라는 무모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들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법률적

보장을 해주었던 우리 정부에 의해 공단이 중지되는 점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헌법 소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한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대한 권리를 물었습니다. 위헌적 사건이 과연 옳은 일인지 따져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나, 5년이 지나도 헌법재판소에서는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개성공단 중단사건을 5년째 맡은 변호사가 이렇게 길게 결정을 못 내리는 사건도 드물 것이라는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이 재개되기만을 원하면서, 또 인내하면서 5년을 보냈는데, 그들 중 상당히 많은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서 동지를 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개성공단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입니다. 저희가 여러 절차에 따라 개성공단에 관한 사안을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개성공단이 중단되고 난 후 개성공단의 가치를 더욱 크게 인식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의 중단으로 기업들은 하나 둘 기회를 잃어가고, 문을 닫고, 몇몇 기업들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고, 분쟁으로 인해 아픔도 겪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 우리는 개성공단의 가치를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은 물론, 당선 후 한결같이 개성공단의 재개를 위해 애쓰겠다는 말을 우리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1년밖에 남지 않은 정권으로서 이제 기회를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권이 들어온 시점에서 바로 시작했어야 조치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코로나로 어려워진 세계 경제 속에서 개성공단이라는 사업은 남북이 서로 교류하고 교감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로만 느끼게 됩니다.

남북관계는 일반적 국제관계와는 달라

개성공단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북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시간들은 지금도 생생하고, 소중한 기억입니다. 2004년 정부는 남북경협을 옥동자라면서 개성공단을 크게 소개하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투자보장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걱정하지 말 것을 말하며 정부가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개성공단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정부를 믿고 투자를 결정했는데, 항간에는 투자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합니다. 남북관계는 일반적인 국제관계와는 다릅니다. 그 특수성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에게는 사실 남북경협과 개성공단에 대한 지식과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창설준비위원회를 할 때 김동근 관리기관 이사장,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등이 참여해 개성공단에 관한 꿈과 희망을 만들어보자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2004년 6월 시범단지를 조성할 당시에 한국토지공사에서 부지 2만 8000평을 조성해두고 각 기업의 깃발을 꽂아 위치표시를 해 놓은 것을 보러갔습니다. 물도 전기도 인프라도 전혀 없는 허허벌판에 6개월 만에 공장을 가동시켜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를 보고 쇼라고 했습니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약 4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 내지 못하고, 가끔 요란하게 행사만 하는 우리 정부를 보며 신뢰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안에 공사를 준공하여 공장을 돌리겠다고 하니 북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인의 생명은 약속이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곳에서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대 부회장에게 견적도 받지 않고 발주를 했습니다. 시간이 긴급하다고 판단했기에 현대에서 공장을 지어줄 것을 부탁했고, 현대는 공장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개성공단을 열렸고, 저는 도전을 했습니다.

근로자가 관리자가 되다

다음은 개성공단에서 만난 북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04년도에 저희가 채용한 북한 인력들의 사진을 함께 보겠습니다. 저분들의 옷차림은 저래도 북한의 최고 명문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력들이었습니다. 제가 북한 당국에 요청을 할 때, 북한 최고 엘리트들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에서는 썩 노동력을 가지고 일하려고 개성공단을 지은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통해 미래를 만들고 싶다고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인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방식으로 개성공단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직책을 주고, 임명장을 만들어 주고 각자에게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북한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지만, 일단 저는 독단으로 임명을 강행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개성공단 근로자로 왔다가 개성공단의 관리자가 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북한의 인력을 양성하는 사관학교가 되어 갔습니다. 우리가 교육한 인력들을 북한 당국이 빼어갈 때에는 처음에는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교육시킨 인력을 빼간다면 북한 사업을 지속하기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간곡한 사정을 듣고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우수한 인력을 만들어서 시장 경제를 배우게끔 하고 이를 통해 더 넓게 더 많이 북한을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행사 때 저는 개성공단에 500명, 5000명을 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백만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은 '기술'인데, 이 법씨와 같은 기술을 보급해서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 되도록 하겠다는 꿈을 나누었고 이를 들은 북한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저희는 개성공단 최초로 컴퓨터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사전에 이를 공유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저희 회사는 SJGS라는 이름으로 소통을 했는데, SJ테크는 남쪽에 있는 저희 회사의 이름, GS(개성)는 개성공단에 있는 저희 회사의 이름입니다. 남과 북이 긴 분단의 역사 속에서 소통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소통에 관한 교육 책자도 만들어서 북쪽으로 올려 보냈습니다. 이 책을 북한 사람들이 몽땅 외우는 것을 보고 놀랐던 것이 기억납니다. 또한 교육을 할 때 너무 많은 질문을 주어 결국 교수님들을 모시고 올라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이것이 SJ테크 개성기술학교 탄생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데스크 탑 컴퓨터를 교육장에 설치해 두고 SJ테크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IT 교육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우리를 향한 벽이 점점 허물어지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일요일에도 북쪽 근로자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기업의 사장님들이 어떻게 SJ테크는 일요일에 북쪽 직원들이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교육장에 있는 컴퓨터에 어린아이도 어른도 좋아할 만한 게임을 깔아두었더니 일요일에도 게임하고 싶은 근로자들이 몇 십리 길을 걸어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통근버스도 우리 회사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희망이 하나둘씩 쌓여갔습니다.

개성공단의 사명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

업무 시간 중간에 회사 운동장에서 체조를 하고 있는 데 이것을 '업간체조'라고 합니다. 이 시간이 아주 즐겁습니다. 남쪽 직원들도 함께 어울려서 체조를 하는데, 이렇게 서로 어울려가면서 소통하고 교류하는 모습들이 하나씩 둘씩 생겨났습니다. 개성공단에 여러 번 외신 기자들이 방문했는데, 우리나라를 통해서도 오고, 북쪽을 통해서도 왔습니다. 개성공단은 세계에 남

북의 평화를 홍보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개성은 이렇게 분단지역인 한반도에서 서로가 인도적 지원식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했습니다. 평양을 통해 방문한 미국의 한 기자가 "이것은 쇼를 하는 것이다. 분단구역에서 경제협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저 사진처럼 근로자들이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개성공단이 평화라는 것을 본인이 순간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를 자기가 미국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사람들이 잘못알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를 다시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개성공단은 대한민국의 자긍심이었고, 분단의 비극을 극복할 수 있는 시작이었으며 한강의 기적을 만든 나라가 평화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명감이 우리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개성공단을 보며 북한은 두려워하고 부러워했을 듯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들러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개성공단에 들렀습니다.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이 정말 소중한 민족자산이고, 희망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 하시면서 저희들을 격려했습니다. 개성공단의 야경을 보면서 북쪽 사람들은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힘이라며 경이롭게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느꼈습니다. 어떤 전쟁 무기보다도 개성공단을 보면서 북한은 두려워했고, 부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허허벌판에서 이루어낸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낸 한국 사람들은 북한에게 모두 VIP였습니다. 북쪽에서 한전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 VIP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졌습니다. 개성공단의 야경이 대한민국의 힘을 가감없이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다. 엘빈 토플러는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개성공단이 한반도의 미래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경 너머에 이런 거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위대한 미래학자가 경이를 표했습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이 2011년 홍준표 대표가 개성공단을 방문한 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를 직접 들었는데, 남한으로 다시 내려가서는 탄소리를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본 북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정치인들이라면 말 바꾸기를 조심하고,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 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신뢰 상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홍준표 국회의원이 방문했던 시기가 5.24조치 이후였기에 그 말에 대한 북한의 기대가 컸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보고 저희는 개성공단이 열리는 한반도의 희망이 올 줄 알았습니다. 백두산에서의 만남 속에서 두 정상은 개성공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희망을 품었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이런 일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가 다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냐는 소망을 가집니다. 어쩌면 남북 지도자의 의지를 넘어서 희망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속에 포기해서는 안될 희망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북한 사람들에게 희망이자, 평화를 만드는 기대입니다.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꿈이 만들어집니다. 남북경제협력에서 마중물

로써 기능했던 개성공단의 가치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던져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경제 공간을 평화의 공간으로 바꾸었던 역사가 사라지고, 중단되고 있는 것을 보는 아픔이 너무 큼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시장경제를 스스로 학습하게끔 하고, 이를 통해 여러 가지 대체공단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개성공단의 사례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며 북한의 변화를 확신합니다. 개성공단은 경제학습장이라는 테스트 란드로서 이미 검증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한된 시간이지만 저는 개성공단을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지키고 싶은 의지를 보이고 싶었습니다. 통일이 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개성공단을 생각하면서 통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자 의무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을 할 때까지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통일이 올 때까지 이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의 통일이 이루어졌던, 한민족이 만나서 서로의 가치를 나누고 이야기했던 곳이 개성공단이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모두 개성공단 재개가 민족의 의무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성공단이 경제적 가치를 넘어 북한 사람에게는 희망과 비전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희망을 나누며 오늘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추원서 (질문)

SJ테크가 개성공단에서 했던 사업 품목(아이템)은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회사인지, 회사 개요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시겠습니까?

유창근 (답변)

저희 회사는 자동차부품을 취급하는 회사인데, 주로 독일이나 유럽의 글로벌기업에 첨단제품을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막상 개성공단에 들어가다 보니 생산 유보판정을 받았습니다. SJ테크가 개성공단에 굳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략물자라는 차원에서 유보판정을 받았습니다. 고민을 하던 중 통제 대상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IT를 생각해냈습니다. IT 컴퓨터 센터를 만들고, 북한의 인력들 중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김책공대, 그리고 성균관 종합대학을 졸업한 연구원 100여명이 있었고, 생산직에는 300여 명에서 400여명의 근로자들이 함께 일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사 근로자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근무는 다른 회사의 북한 근로자들에게도 IT 교육을 7년간 무료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이 3류 공단이 아닌 첨단 공단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와 동시에 연구소를 설립, 13년간 근무한 연구원들이 박사급 우수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정도의 고급인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연구물을 학술지에 발표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과 협의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개성공단의 가치를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한 달 동은안 북쪽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율경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측의 인력 없이 북측 인력만 가지고 운용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 때 성과가 가장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믿어주었을 때, 더 성과를 더 내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잡았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진영 (질문)

제가 듣기로는 개성공단 내에서는 무관세, 수익 창출 전까지는 세금 면제, 값싼 토지가격(평당 9만 원 대) 등으로 개성공단 사업 이익을 내는 것이 쉬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개성공단이 폐쇄되었을 때,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은 상황은 어떠했는지요?

유창근 (답변)

섬유·봉제 업체가 개성공단의 70%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개성공단을 만들 당시 정부는 노동집약적 업종만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술집약적 업종이나 첨단 업종이 함께 들어가는 복합시범단지를 만들어 시범운영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대부분 섬유·봉제, 기계·장치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때, 섬유·봉제 업종은 초기에 인력에 의존해 단기 회수가 상당히 빠른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섬유·봉제 업종으로 투자한 기업들이 조기에 투자회수를 실현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업이 너무 잘되어 재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개성공단의 가능성을 보았고, 개성공단이라는 경쟁력을 보고 바이어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마케팅에 관한 걱정 또한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첫 핵실험이 시작되자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에 큰 리스크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성공단의 규모를 줄이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수출중심적인 산업으로 구성하고자 했던 계획에서 내수중심의 구성으로 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2008년 박왕자 사건 이후 북측의 10.21조치로 저희들의 투입을 제한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이 때 대북한 투자의 위험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3월마다 이루어지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이었습니다. 이 시기마다 개성은 불안·어려움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보다는 어려움 속에서 전전공공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개성이 리스크가 큰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투자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의 가능성을 보고 중국공장을 철수시켜 개성으로 옮긴 것이 가장 뼈아픈 선택이라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해외에 있던 공장들을 유턴시켜 개성공단을 활용하고자 했던 기업들에게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박하 (질문)

유창근 대표님, 강의와 끝까지 희망을 갖고 살겠다는 말씀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해 '세계의 옷공장 북한'이란 책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홈쇼핑에서 파는 옷들이 평양에서 만들어 중국 통해 납품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깜짝 놀라기도 했고 한편으론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봉제공장 기능공들은 개성공단에서 양성한 게 아닐까요? 다른 분야 기능공들도 이런 식으로 활용되고 있을까요?

유창근 (답변)

세계의 옷공장이라고 하면서 개성의 물건들이 나와 있다는 것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

합니다. 지금은 이미 봉쇄조치가 취해져 있기 때문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주로 중국을 통해서 북측 근로자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 사례들은 존재하지만, 현재 개성에서 물건이 만들어져서 나온다는 것은 저희의 모니터링에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하에서 '세계의 옷공장'이라는 주장은 와전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개성공단에서 있었던 일들이라고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유연비어와 같은 말들도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조은상 (질문)

개성공단에 입주하여 SJ테크는 400여명의 인력을 고용했고,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성과가 가장 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이 폐쇄된 후 회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해외 진출 혹은 국내 업체 운영인가요? 아쉽지만 단시간에 개성공단이 재개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개성공단의 재개를 위한 다양한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유창근 (답변)

개성공단에는 5만 5천여 명 정도가 2016년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 저희 회사는 400여 명을 고용하고 있었고, 그 중 100명은 연구원이었으며 400여 명 중 40% 정도가 대졸 출신이었습니다. 60%는 고졸이었습니다. 대부분 최빈 국가들의 문제점 중 하나가 교육이 취약하다는 것인데, 북한은 의무교육으로 고등중학교까지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학력수준이 대단히 높아서 기업에서 인력을 활용할 때 학습능력이 대단히 빨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대학출신 근로자들은 자긍심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교육을 시키면서 제가 본 일반적인 사람과 수재와의 차이는 6개월까지는 비슷하지만 그 이후에 일에 임하는 자발성이라는 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혜롭게 일하는 방법을 터득해냈습니다. 스스로 원가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했고, 근로자들끼리 열띤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북측 근로자가 다른 기업들에게 멘토링을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개성은 학습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갔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교육을 담당하면서 '부자되는 법'이라는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북측 담당자와 관리자들이 자본주의식 교육이라며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교육을 받지 않으면 기업에서 일할 수 없다고 설득했고, 그들도 얹혀놓고 함께 강의를 듣도록 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거지가 많은데, 그 이유는 월급을 쓴다는 것이 마약과 같아서 자신의 월급 이상으로 돈을 빌려서 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월급의 10% 이상을 꼭 저축하라는 메시지를 강의했습니다. 이 강의를 들은 북측 담당자들은 좋은 강의였다면서 이후 협조적으로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볼 때, 북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본 경험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임영희 (질문)

개성공단의 의의가 이렇게 컸는지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저는 철원에서 살고 있는 임영희

입니다. 질문은 철원군은 접경지역에 평화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공단을 접경지역에 짓고 북한 인력이 와서 일하는 형태인데 강사님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유창근 (답변)

개성공단에 직접 입주해보고 느낀 점은 북쪽에 여러 공단을 만들어서 다양한 업종들의 교류를 장려한다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보다는 북쪽과의 교류를 늘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에 사업/분야별로 공단을 만들어서 동시에 북쪽과의 경제교류를 진행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철원지역에 맞게끔 사업이 진행된다면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운 (질문)

개성공단에 대한 국내의 여론이 매우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퍼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창근 (답변)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기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은 개성공단은 저임금의 값싼 노동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강점이 '양질의 노동력'이라는 점으로 말입니다. 북한은 우리 민족으로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력이라는 강점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한 인력을 생산현장으로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은 국내산업의 노동력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실마리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인력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을 개성공단에서는 반기는 것을 보면서 남북이 상생협력하여 발전할 수 있는 고리가 바로 이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북한에 퍼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성공단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북한 근로자들의 불만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임금이 별로 없다는 것이었던 것을 압니다. 개성공단에서 임금을 제외한 경제적 가치는 남측의 부가가치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퍼주기’ 논란은 우리 국민들의 오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어떤 나라에 맡기는 것보다 좋은 질의 상품, 그리고 물류비 등을 고려해 볼 때 환경적으로 이보다 좋은 곳은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퍼주기’ 아닌 ‘퍼오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은 (질문)

개성공단을 폐쇄할 당시 우리 정부는 노동자들의 급여가 핵개발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밝히며 개성공단을 중단시켰습니다. 첫째, 이러한 논란에 관한 명확한 결론이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공단이 재개된다면 이와 같은 논란이 반복 될텐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창근 (답변)

한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인지를 살펴볼 때, 최빈국 기준 1인당 2달러 정도로 잡습니다. 그런데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저희가 지급하는 북한 노동자 임금은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준의 돈을 핵에 모조리 쓴다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UN에 가서도, 미국의회에 가서도 개성공단이 북한 주민의 민생을 위한 인도적 사업이었으며, 핵을 위한 자금을 대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실히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심은 계속해서 증폭된다는 점에서 무섭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증명보다도 상식을 통해 생각해 보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UN에서 개성공단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개성공단은 인도적 사업이자 평화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UN뿐만 아니라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개성공단에 방문했을 때 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문제는 상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UN 인권위원회에서는 오히려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너무 낮아서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언급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북측은 최소 300달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핵개발에 사용되었는가라는 문제를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중태 (질문)

개성공단을 통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핵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불식시키는 설득력이 강한 논리의 개발과 홍보가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성공단의 재개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유창근 (답변)

2004년 개성공단을 시작할 당시 북한 핵문제가 거론되고 있었으나 조율을 통해 개성공단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해보면서 얻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개성공단을 모르는 것처럼 서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잦은 분쟁과 오해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같은 문제를 개성공단이 완충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핵을 건너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생존의 문제, 먹고사는 문제를 개성공단이 해결함으로써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안에서 북한의 계획경제와 우리의 시장경제가 조율이 되면서 서로가 배우는 점들이 있습니다. 경제가 중요해지면 핵문제가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해 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학습을 통해 부유해 질 수 있다는 것을 개성공단을 통해 보여줄 때, 핵을 버릴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 우리가 북한사회를 바꿀 수 있는 범주로 끌고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놓쳤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쓴다면 앞으로 들어설 다음 정권은 조금 더 쉽게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성공단을 만들 때 정동영 장관이 미국방부 장관을 만나서

한반도에 관심이 없는 그들을 설득했던 것처럼 이제는 다시 용기를 내서 기회를 만들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김석환 (질문)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일을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것을 북한 사람들은 반겼다고 하신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설명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보았을 때 오해할 수 있는 대목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퍼주기 논란에 대해 말씀해주신 부분은 상당히 공감합니다. 국민들의 인식의 전환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북한 근로자들에게 주는 임금의 수준 부분을 정확히 언급한다면 퍼주기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유창근(답변)

제가 말씀드린 선호하지 않는 일을 북한에서는 반겼다는 부분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개성공단에 들어간 사업체들은 매우 다양했고, 그 중에서 노동집약적 산업도 있고 첨단 산업도 있었습니다. 북측에서도 처음에 노동집약적 산업만 입주할 때에는 사업에 대해 재검토해보겠다는 답변까지 했지만, 이후 첨단 산업이나 기술 산업들이 함께 들어오면서 차츰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노동집약적 산업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적인 측면들을 발전시켜나간다면 다른 측면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함께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때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개성공단 사업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서로 다른 점에 대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토론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배웠고,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개성공단 퍼주기 논란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이루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